

다음 50년을 생각하며... Thinking of the next 50 years

이제 5년 후면 협회가 설립된 지 50년이 됩니다.

지난 45년 동안 우리는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많이 달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건축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건축과 그 중심인 건축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에 대해 반성을 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문화를 만드는 전문가의 일원으로서 선진국에서처럼 정치가, 정책수립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존중을 받아왔는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무단체로서 제도권 안에서 특혜를 만끽하며 여유를 부리다 임의단체가 되고 나서 찬밥이 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50년이 다 되도록 제도권 내에서 헐떡이며 밥그릇을 챙기려 노력하다 지금은 닭 쫓던 개처럼 되고 먹거리에 숨겨진 우리의 모습이나, 서로 가협화다 사협화다 갈라서서 서로의 살을 찢어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기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건축단체의 말형이라고 큰소리치지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생각해본 건축사가 있는지요?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앉아서 나 말형이고 어른이니 공경해라 해서 공경하는 사회가 아님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기반인 국회부에 가서도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제도하나 만들어도 가협화나 새건협이 반대하면 밥그릇이라 생각하는 밥그릇도 놓치고,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수들에게 밀리고, 가협회 새건협 한자리씩 나누기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준공식에도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혹자는 싸움을 덜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해부가서 책상을 부수고 테모 안에서 그렇다고 외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무나 수행해야 할 책임을 더 이상 잘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존중해달라고 외치고, 일을 달라고만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진정 이런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헤어나려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선 건축설계에 관여하는 전문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 그들이 온전한 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수들, 건축사가 되기 위해 월급 덜 받고 자기의 젊음을 바치는 건축사보들, 그리고 건축사들, 이 네 그룹은 다른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건축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건축문화를 창달하고 좋은 도시건축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저 하는 하나의 목적이래 뭉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협회는 제도권에서 눈앞에 보이는 제도의 변화에만 급급하여 그때그때 대응하고 싸우는 전략을 버려야 합니다. 좀 더 큰 전략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건축사가, 건축전문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기존의 건축사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유지운영하며, 밖으로는 후세에 물려줄 훌륭한 도시건축 환경을 만들고 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회봉사하며 공공의 이미지를 부가하여 거듭나야 존경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밥그릇을 챙기다 다리위에서 자기의 먹이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강아지 꼴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그림은 모든 회원들과 건축전문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회장이 바뀌어도 이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설계가 건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건축이 건설의 도구로서 전락함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도시건축문화의 주요한 도구로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사에게 그리고 모든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도시건축문화야말로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유산이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변화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변화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하려면 약간의 희생, 아니 어쩌면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희생이 좋은 도시건축문화를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고 후배건축사들이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변화 없이는 건축사로서의 건축전문가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미미해질 뿐입니다. 변해야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50년을 새로이 준비할 수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



신춘규 / Shin, Chun-gyu, KIRA/AIA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약력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담당 이사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